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미·용·허·락

Vol.596

희망이
있기에
찬란한
미래

피트니스 선수
김나윤



월간 **내일**
01 January 2025
Vol.596

Contents

2025.01

Vol.
596

희망이
있기에
찬란한
미래



Special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전환의 방향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내일>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경성문화사



04

토魄 에세이

미래를 비추는 희망 한 줄기

08

쉬어가기

희망은 여기에 있어요

10

어쩌다 우린

장애친화적 환경이 만든 상생과 공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4

내일 인터뷰

인생을 긍정하는 용기, 희망이라는 삶의 선물
피트니스 선수 김나윤

Move

우리 사회의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가는 가치 있는 이야기

18

내일을 향한 도약

최연소 식물보호산업기사의 탄생, 더 가까이 꿈에 직행하다
유선화 씨

22

고용 아카이브

2025년 확대되는 일·육아지원제도

26

희망 브릿지

'지금 이 순간' 도전하면 희망도, 꿈도 더 커집니다
하윤수 씨

30

일터애(愛)서

대학교 일학습병행 훈련이 쉬워진다!

32

내일, 매일

첨단기술로 농업의 미래를 열다
박현출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장

36

기자단이 간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인턴형 참여 후기:
청년의 첫 직무 경험,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Wave



Wave

오늘의 변화 속에서 펼쳐지는
유용한 정보와 내러티브

38

내일, 플레이스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전포카페거리·전포공구길 여행

42

트렌드 프리뷰

디지털 시대에도 변치 않는 물성의 가치

44

MOEL 뉴스

48

팩트풀니스

다시 찾아온 절약의 시대

50

잡, MBTI

시각디자이너·사서

52

넬툰

희망은 곳곳에 있어요 & 기분 좋은 하루

54

WEVENT

초성퀴즈 & 독자 라운지

미래를 비추는 희망 한 줄기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내일은 분명히 나아지리라 스스로 위로하며
긴 어둠 끝에 다가올 한 줄기 빛을 기다리는 일.
우리는 그것을 희망이라고 부른다.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넘어진 순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것도,
미래를 꿈꾸게 하는 것도 희망이다.

아름다운 내일을 기대하며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다 보면
희망의 불빛이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를 비출 것이다.

새해에는 매일 매일이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마음 가득 품으며,
행복과 평안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은 여기에 있어요

오래도록 집안만 서성이며 살았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통증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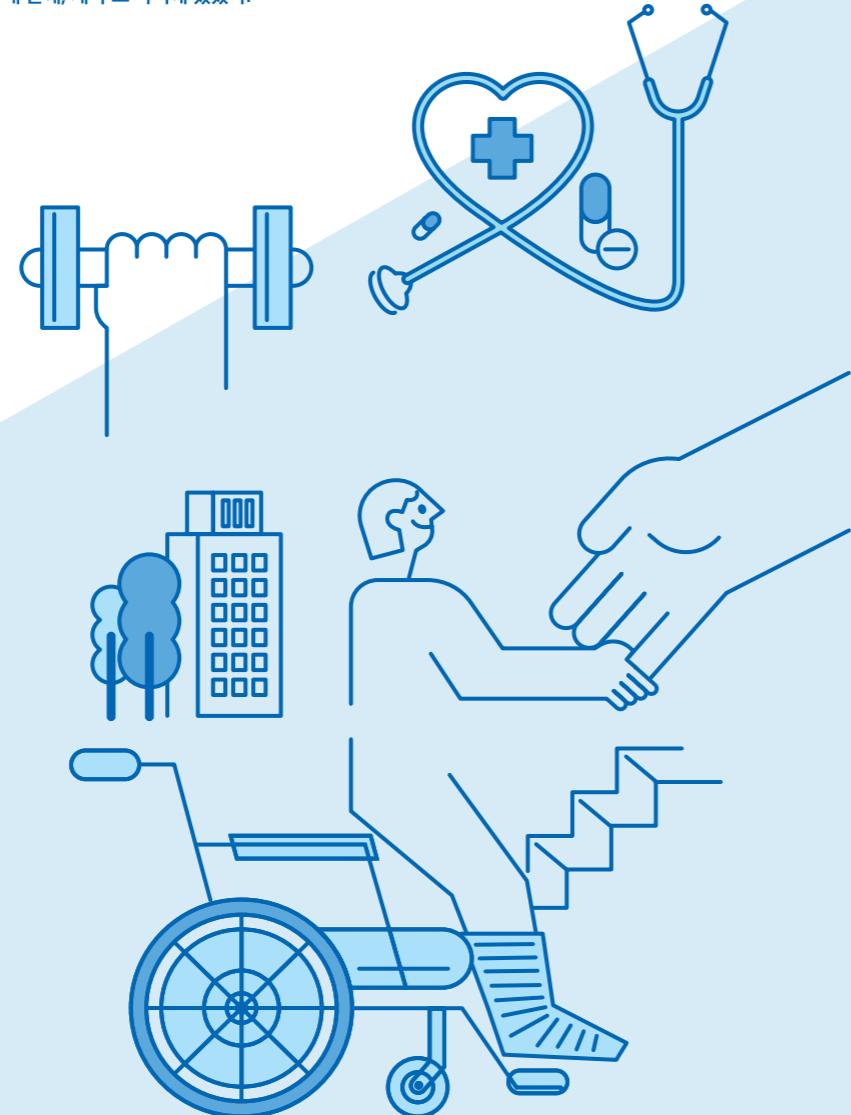
그러나 원인도 해결법도 없는 통증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내 안에,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

글 임혜린

어느 날 문득 찾아온 통증은 몸 전체에 산재했고 전신 피로감에도 시달렸다. 하지만 어떤 검사에서도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섬유근육통이라는 진단명을 건네주었다. 들어 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통증의 원인과 해결법이 없다는 그 병은 나를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뭘 하고, 뭘 하지 않아야 아프지 않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봄이 왔는데도 바깥에 나가 뛰어놀 수 없었다. 통증이 처음 찾아왔던 시기의 나는, 내가 그리워하는 것들을 종이에 적어 벽에 붙여 놓았다. 꽃, 하늘, 나무, 바다, 햇살, 공원, 바람 그런 것들. 침대에 누워 종이를 바라보며 그것들을 다시 보고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랐다.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희미한 다짐이었다.

내 통증에 듣는 약은 없었다. 끝에 기본 적은 없으나 운동적인 치료를 해야 할 것 같다는 희미한 확신이 있었다. 백방으로 알아본 뒤 나와 같이 운동해 줄 선생님을 찾게 되었다. 그와 함께 재활 운동을 하며 느리지만 몸이 차츰 나아져 갔다. 모든 나아짐은 느리고 눈에 띄지 않았다.



임혜린

중·고교 영어교사 겸 싱어송라이터였다.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 섬유근육통을 앓게 되고 희망을 꿈꾸며 에세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썼다.



그저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언젠간 아픈 몸을 벗어날 거라고, 지금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거라고 믿는 수밖에 없었다.

오년 정도 통증의 시간에 살았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를 괴롭혔던 통증이 이제는 기억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그것을 잊을 수 있을 만큼 나는 괜찮아졌다. 한때 다이어리에 '희망은 내일에 있어요'라는 메모를 적어두고 매일 보았다. 절망적인 오늘을 보지 말고 내일 다가올 희망을 보자는 말이었다. 매일이 통증의 날들이었지만 마음속에는 희망을 품었다. 긴 시간 나의 '오늘'은 절망적이었지만 나는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며 버텼다. 조금씩 더 나아질 내일, 그리고 그 내일의 내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나의 통증도 오랫동안 그 말과 함께 했다. 하지만 멈춰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면,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어느새 모습을 드러낸다. 장애물에 가려져 잠시 보이지 않았을 뿐 희망은 그 자리에 있다. 아주 꾹꾹하게.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을 것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내 눈 앞을 가린 어두운 장막은 곧 걷힐 것이다. 밝은 빛이 내 안에 함께 할 것이다. 다 포기해 버리고 싶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의 이야기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까만 방안에서 가만히 혼자 흐느껴 울더라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나에겐 나 자신이 있다는 것을. 희망은 나에게 있다.



장애인친화적 환경이 만든 상생과 공감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편견과 인식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일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장애친화적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고용 다양성을 확보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자들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글 김지연 사진 오충근

Q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어떤 기관인가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은 건설 및 국토관리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성과확산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건설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연구개발, 정책 수립 및 기술지원, 품질 인증, 시험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형 재난·재해 예측 및 평가, 에너지 절감 기능 건축물 설계, 국내 최초 15층 모듈러 구조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성과를 내 IP-R&D 최우수기관 선정,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사업 유공, 발명의 날 유공 표창 등을 수상했습니다.

Q 2024년 「제1회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셨는데요. 건설연이 장애인 고용컨설팅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출연(연) 우수성과 일자리 정책 분야 제고 기여 유공 등을 받으며 고용 다양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기관 평균에 비해 현저히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무고용 부담금 사용과 기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고용 해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컨설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장애인 고용컨설팅의 진행 과정과 그 과정을 바탕으로 개선된 사항은 무엇인가요?

출연(연) 최초로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 협약을 체결한 후, 고용 진단을 통해 건설연의 장애인 고용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이에 직무개발 워크숍을 시행해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제한 경쟁 특별채용을 도입했고, 현재까지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Q 장애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오는
동안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년간 장애인 직원 지원자 비율이 0%에 가까웠고, 담당자 또한 장애인 직원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고 채용 정보도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통해 장애인 고용 문제점을 진단받고 해결책을 찾고자 했습니다. 장애인 고용 업무 외에 다른 업무량도 많은데다 기존에 시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도의 도입, 빠른 시간 내에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 등 때문에 부담감도 있었습

니다. 하지만 원장님과 부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자격을 취득하고, 장애인 제한경쟁 특별채용이라는 신규 채용 프로세스를 만들고 시행해 장애인 직원 채용에 성공하면서 건설연의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 담당자로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Q 장애인 고용컨설팅 참여 이후 기관

전반적으로 변화한 점이 있다면요?

기존에 2%대 미만이었던 장애인 고용률이 최고 3.7%까지 상승했고, 컨설팅 이전 5년간 장애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이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활용해 장애인 고용 성과를 창출했거나, 장애인 고용 확대 기반 조성에 성공해 장애친화적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관 및 기업을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의지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인 직원 채용인원이 6명에 그쳤으나 이후에는 고용인원이 37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처음에는 각 부서에서 장애인 직원의 업무능력에 대한 편견도 있었지만,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수율을 100%까지 향상시키고 우수한 장애인 직원들이 입사해 실제로 업무에 큰 도움이 되면서 장애인 채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직원과 동료로 일하는데 직원들의 편견과 거부감이 사라졌으며, 장애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Q 그 밖에도, 건설연이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해 시행 중인 복지제도가 있나요?**

매년 2회 이상 장애인 직원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원 간 친목을 도모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수한 장애인 직원이 포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장관 표창, 원장 표창, 복지관 모범직원 포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일반경쟁 채용 시 전형별 장애인 우대 가점 10점을 부여하며, 계약직 장애인 직원 면접 시 면접 비용 지급, 입사 시 웰컴키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건설연이 장애인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계획 중인 목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제한경쟁채용 연간계획을 수립해 정기적인 채용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동시에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나윤
피트니스
선수

인생을 긍정하는 용기 희망이라는 삶의 선물

뿌리는 훈들릴수록 더 깊게 내린다고 했다. 사고로 한 팔을 잃은 김나윤 씨는 유연하게 중심을 잡으며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 왔다. 장애인 최초로 WBC 피트니스 대회에 참가해 4관왕을 거머쥐는가 하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중이다. 절망 속에서 삶의 긍정을 길어 올리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한 법. 김나윤 씨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글 김주희 사진 오충근

Q 나윤 님을 수식하는 타이틀이 많은데요.
요즘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피트니스 모델 및 선수, 배드민턴 선수, 강연가, 유튜버 등 기존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동시에, 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은 차츰차츰 준비해 오던 책을 집필하고 있어요. 저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를 옮겨 선보일 계획입니다.

Q 10년 이상 헤어디자이너로 활동하던 중
인생의 큰 변화를 겪으셨는데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으며 이를 극복한 과정이
궁금합니다.

2018년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여름날이었어요. 주말에 친구들과 춘천으로 향했는데요. 주어진 휴일이 단 하루였던 터라 빠르게 이동 가능한 오토바이를 탔고, 커브 길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친구가 다가와 울면서 한쪽 팔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얼마 뒤 119가 도착했고 헬기를 타고 서울로 와서 접합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패혈증으로 인해 결국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오히려 생각이 더 또렷해지더라고요. 절단 후 염증 부위가 사라졌고 컨디션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혼자 가기,



걷기 연습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❶ 일상생활 복귀 후 2021년 WBC

피트니스 대회 4관왕 달성, 2022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배드민턴 동메달 획득 등 다양한 도전을 해오셨는데요. 처음 피트니스 대회 출전을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한 팔로 생활하니 척추측만증이 심해졌어요. 통증이 발생해 재활운동을 시작했는데, 당시 박사님이 대회 출전을 권유하셨습니다. 근육 운동을 전문적으로 해본 적이 없던 터라 내 몸에도 근육이라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내가 정말 완주할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 인식 개선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기도 했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누군가 저를 보고 삶을 살아가는 데 희망을 얻길 바랍니다. 첫 출전인 만큼 수상을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완주가 목표였거든요. 예상치 못한 결과에 감사하면서도 얼떨떨했습니다.

❷ 유튜브 채널 ‘김나윤의 윤너스TV’도 운영 중입니다.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한 계기도 궁금합니다.

사고 이후 절단 장애인을 검색했을 때 관련 영상이 많이 없더라고요. 특히 상지 절단 장애인과 관련된 정보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단 장애인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일상의 모습을 통해 담백하게 내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장애인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2025년, 여러분의 희망을 꼭 실현해 보길 바랍니다.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멋지고 의미 깊은 한 해가 될 테니까요.

밀어준 지인들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사람들이 다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었어요.

❸ SNS 프로필 중 ‘보이지 않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라는 글귀가 인상 깊었어요. 희망 또한 무형의 요소잖아요. 희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희망은 원대하거나 큰 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곧 희망이 아닐까요. ‘희망찬 내일’이라는 표현을 많이들 하잖아요. 매일



❹ 우리는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쉽게

절망하고 주눅들곤 하는데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내 생각을 전환하는 건 결국 자신뿐입니다.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꿔나가는 그 기저에는 ‘감사’가 존재했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컸고요. 병실에서 한결같이 곁에 머물러준 가족, 저를 환자로 여기기보다 평소처럼 편하게 대해준 친구들, 직장에 복귀하도록 손내



매일 알차게 살고 작은 소망을 하나씩 이뤄보는 거죠. 작은 성취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큰 희망이 될 테니까요. 저 또한 혼자 양말 신기, 옷 지퍼 올리기 등 소망을 하나씩 이루면서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❺ 2025년 새해를 맞아 계획 중이거나

이루고 싶은 목표를 소개해 주세요.

새해에 피트니스 대회에 출전하는데, 이전보다 근육이 더 불었으면 좋겠어요. 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배드민턴 종목 출전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전보다 더 높은 성과를 이루고자 합니다. 아울러, 하반기 책 출간을 통해 다양한 독자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❻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월간 내일>

독자들에게 응원의 한 마디를 부탁드립니다.

정해진 목표와 희망이 있다면 꼭 행동으로 옮기길 바랍니다. 실천과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근사한 목표로 머물기 때문이죠. 그리고 희망이 진정 내가 바라는 것인지, 혹여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닌지 고민해 보는 과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2025년, 여러분의 희망을 꼭 실현해 보길 바랍니다.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멋지고 의미 깊은 한 해가 될 테니까요.

최연소 식물보호산업기사의 탄생 더 가까이 꿈에 직행 하다

확고한 진로가 있다면 꿈을 향해 가 달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고등학생 시절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과정에 참여해 최연소로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유선화 씨는, ‘사람과 식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꿈꾸며 또 다른 꿈의 여정을 그려 나가고 있다.

글 김주희 사진 방문수

식물에 대한 관심, 業이 되다

유선화 씨는 유년 시절부터 식물을 가까이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공원을 자주 다니면서 식물을 관찰했고, 관심이 깊어질수록 애정도 커졌다. 집에서 식물을 기우며 본격적으로 식물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이때 생태계에 산소를 공급하는 식물의 역할과 중요성을 깨닫고, 식물을 다루는 일을 하겠다는 꿈을 품었다. 일찍이 진로를 결정하고 중학교 졸업 후 농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식물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농업계 고등학교를 찾다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를 알게 되었어요. 매주 인천 집에서 대구까지 7시간을 왕복해야 했지만, 좋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음에 즐거웠습니다. 재학 당시 농업계 고등학교 최초로 우리 학교에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도입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선생님의 제안으로 자격증 취득에 도전했습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현장 직무 중심인 국가직무능력(NCS) 기반의 교육과 훈련을 이수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자격 제도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춘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관련 직무 경력이 없는 고등학생이 산업 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유선화 씨는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증에 도전했다. 식물보호산업기사는 전문 기술과 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식물의 피해 진단 및 방제 업무를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우수사례자
유선화 씨





수행한다. 방과 후 교육에 참여한 유선화 씨는 더욱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어릴 적 품었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전문가로 향하는 배움의 확장

고등학생 신분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학교 수업과 병행해야 했기에 대부분의 여유 시간을 자격증 교육에 할애해야 했다. 하지만 새로운 배움은 더 넓은 세상을 보여

**취업 준비를 하면서는 자격증의 가치가 더욱 크게 와 닿았는데요.
자격증을 기반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다양해지더라고요.**

줬다. 10만여 평 규모의 농장에서 실습이 이뤄졌는데, 두 눈으로 생생하게 잡초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실험실에서 전자현미경으로 병원균을 관찰하며 농작물의 병·해충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식물 진단 및 방제 기술을 익혔다.

“평소에는 접할 수 없었던 내용을 세심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 식물이 더 좋아졌던가요. 특히 해충을 공부하면서 곤충 분야의 지식까지 습득할 수 있었는데요. 넓은 시각으로 생태계 전반을 관찰하고 식물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3학년에 걸쳐 1년 4개월 동안 개인적인 스케줄을 포기하고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진한 노력은 유의미한 결실로 돌아왔다. 농업계 고등학생 최초이자 만 17세 최연소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이라는 눈부신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최연소’라는 타이틀이 매우 영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는 자격증의 가치가 더욱 크게 와 닿았는데요. 자격증을 기반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다양해지더라고요. 대다수의 농업 관련 기업 채용 시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증에 가산점이 적용됐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입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나무의사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유선화 씨는 현재 공기업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에서 근무하고 있다. 북미 국가에서 요구하는 출항 선박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 검사 인증과 예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북미에서는 나무의 잎을 갉아 먹어 숲을 완전히 파괴하는 산림해충 아시아매미나방의 흔적만 있어도 입향을 거부할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유선화 씨는 식물보호산업기사를 공부하며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아시아매미나방의 특성과 생활사를 파악해 검사를 진행한다. 아시아매미나방이 활발히 활동하는 고위험기 6~9월 사이에는 더욱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며 성취감과 보람을 맛보기도 했다.

유선화 씨의 꿈은 계속 자라는 중이다. 수목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나무의사로 활동하기 위한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월에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곡차곡 경험을 쌓고,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싶어요. 나무의사가 되어 우리나라에 보탬이 되겠다는 막연한 바람을 넘어 나무 의사 면허로 농업과 임산업 시장에 긍정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식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어요. 목표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꿈은 미래를 만드는 씨앗이다. 가슴 속에 품은 소중한 꿈이 발아하고 성장하며 미래라는 큰 숲을 이룰 때까지 앞으로 나아갈 유선화 씨를 응원한다.



2025년 확대되는 일·육아지원제도

정부가 지난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19일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대폭 확대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본다.

정리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



①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 원 → 250만 원]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250만 원 → 300만 원]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 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 원씩 부부 합산 5,920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 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 원(월 120만 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북·경북·광주·울산) 연간 최대 200만 원 / (서울) 연간 최대 120만 원

②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도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 육아휴직 지원 강화

육아휴직 소득지원 강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이 총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 원씩 부부 합산 5,920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행	개선
급여	월 최대 150만 원	월 최대 250만 원 [1~3월] 250만 원 [4~6월] 200만 원 [7월~] 160만 원
지급 방식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	급여의 100%를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첫 1개월 최대 200만 원 [월 최대 200~450만 원]	첫 1개월 최대 250만 원 [월 최대 250~450만 원]
한부모 특례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 원



육아휴직 신청자와 사업주의 편의성 향상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육아휴직 사용 신청

현행	개선
출산휴가 신청 후, 육아휴직 별도 신청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육아휴직 사업주 허용 절차

현행	개선
허용 의무만 있고 별도 절차 규정 없음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기간 내 미허용 시 신청한 대로 사용 가능)

중소기업 지원 확대



대체인력 지원금

현행	개선
월 80만 원 [출산전후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최대 120만 원 [육아휴직도 포함]

업무분담 지원금

현행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	육아휴직도 포함

'지금 이 순간 도전하면 희망도, 꿈도 더 커집니다'

하윤수 중장년내일센터 서포터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을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 후 재취업을
고민하던 하윤수 씨 또한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
제2의 인생을 활짝 열었다.

글 김주희 사진 정영찬

자신감이 절망으로, 다시 희망으로

하윤수 씨는 38년 동안 보안 전문업체에서 일했다. 출동 요원으로 입사해 관제 및 영업 업무 담당, 사건사고 처리, 지점장, 본부팀장 등 다양한 직무와 업무를 수행하며 실무와 경영을 아우르는 전문가로 활동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시절을 뒤로하고 퇴직 후 제주 한 달 살기를 하며 휴식을 취했지만,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싶어졌다.

"오랫동안 일을 하던 습관이 있던 터라 다시 일을 하고 싶었어요. 20여 곳에 이력서를 보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 경력 정도면 못 할 게 없는데, 왜 연락이 없지?' 불안한 마음에 지원한 회사에 연락해 보니 이력서를 자세히 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면접을 본 곳에서도 '독보적인 경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젊은 구성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 그때 만난 곳이 중장년내일센터였다. 하윤수 씨는 서울서부중장년내일센터에서 '생애경력설계', '전직스쿨' 등 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일대일 면담, 단기 특강 등을 받았다. 자신의 경력과 성향 등에 맞춘 세심한 멘토링은 재취업의 길라잡이가 되어 주었다. 적합한 일자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노하우와 팁도 유용하게 다가왔다.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했기에 그동안 취업 준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력서 한장을 통해 저를 다 보여줘야 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작성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습니 다. 지원하는 기업의 특징이나 사업 분야에 맞춰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도요. 면접 자세와 복장 등도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니까 도움이 많아 되었습니다.”

내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다

전문가의 코칭을 받으며 재취업에 도전한 하윤수 씨는 사회적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인턴십 기간 3개월 동안 젊은 세대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일을 경험하며 재취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대표에게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경영관리 노하우도 공유하기도 했다.

성공적으로 인턴십을 마친 후에는 경기도 용인에 자리한 기업에 취업해 경영지원 업무를 도맡아 했다. 정보통신 전문 기업에서 공장 증원, 제품 인증, 벤처기업 설립 등의 행정 업무와 입찰, 계약, 인력 관리 등을 담당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자신감을 회복했다.

일을 하는 동안에도 중장년내일센터 상담사와 꾸준히 소통했다. 상담사의 제안으로 중장년내일센터 서포터즈로도 활약하게 되었다. 40~60대에게 중장년내일센터의 서비스를 홍보하고

**나이와 경력 단절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늘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자신감만 있으면 못 할 게 없으니까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돋는 활동을 이어온 것. 자신이 직접 참여한 프로그램 소개하거나 퇴직 전 중장년에게 필요한 자격증 및 노하우를 안내 했다. 활동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였지만, 그는 현재도 자발적으로 홍보 활동을 이어 가는 중이다.

“제가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 경험을 나누고 싶었어요. 정년퇴직한 동료나 친구 그리고 퇴직을 앞둔 후배들에게도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소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중장년 내일센터에 관련된 내용도 업로드하고요. 모르는 사람에게 안내할 때는 제 전화번호도 알려드립니다. 고민이 많은 이들이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친구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의 도움을 받거나 취업에 성공한 이들이 연락을 해올 때만큼 보람찬 순간도 없다. 퇴직 후 불안과 막막함을 겪어봤기에 이를 극복하고 다시 사회인으로 출발한 순간을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

마음을 열고 오늘을 즐겨라!

하윤수 씨가 꿈꾸는 새로운 인생은 '나눔'에 맞닿아 있다. 직장생활을 할 때도 퇴직 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고민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매달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훗날 사회의 다양한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퇴직 후 재취업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도움말도 잊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신을 노출하는 것을 꺼립니다. 이 때 상담사들이 도와주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밀착 상담을 받을 때는 마음을 활짝 열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자신의 적성과 전망 분야를 연결해 자격증을 획득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더욱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결정’보다 ‘결심’이 중요하다고 했다. 새로운 도전에 임할 때 첫 번째 후원자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하는 법. 하윤수 씨는 제2의 인생 앞에서 망설이지 말라는 따뜻한 응원을 덧붙였다.

“나이와 경력 단절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늘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자신감만 있으면 못 할 게 없으니까요. ‘즉시현금(即是現今) 갱무시절(更無時節)’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지금만큼 더 좋은 시절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행복하게 즐기며 인생 제2막을 스스로 가꿔나가길 바랍니다!”



대학교 일학습병행 훈련이 쉬워진다!

일학습병행 특화대학 KAP 사업

훈련생이 학교와 기업에서 이론교육 및 현장훈련을 병행해 학업·취업을 동시에 이어가는 '일학습병행 훈련'을 2025년부터 대학에서 확대한다. 보다 많은 청년이 학업과 취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훈련 규제를 완화하고 편의성을 제고한 이번 제도의 개편 내용을 알아본다.

글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훈련, 대학에서도 편하게 받자

지난 2013년에 도입된 일학습병행은 훈련생과 기업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학교에서 이론교육(OFF-JT), 기업에서 현장훈련(OJT)을 병행해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이어 나가는 한국형 도제제도로 현재까지 누적 훈련생 16만 명, 기업 2만여 개소가 참여했다.

그간 청년 취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학 일학습병행의 경우,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지원 체계로 인해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25년부터 훈련 시간 규제를 완화해 대학·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훈련 편의성을 제고한 '일학습병행 특화대학(KAP 사업)'을 시범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편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전면적인 제도 적용은 오는 하반기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 명칭 역시 한국형 도제제도의 의의를 강조하면서도 청년층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는 영문 명칭 카프(KAP: Korean Apprenticeship Program)을 사용한다. 개편한 일학습병행 특화대학을 통해 청년들이 한층 더 쉽고 편리하게 기업 맞춤형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학습병행 특화대학 제도 개선 내용

현행

대학

- “대학 일반 교과와 별도로 일학습병행 훈련 과목 구성의 어려움, 운영비·훈련비 등 지원 체계의 복잡함”

학생

- “훈련시간이 너무 길고, 이미 아는 내용을 또 들어야 하는 번거로움, 실무 관련성과 낮은 훈련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

기업

- “훈련 내용 규제로 인해 기업에서 실제로 필요한 실무 훈련이 어렵고, 지원금 명목이 많아 불편”

개선

- 대학 일반 교과도 일학습병행 훈련 과목으로 인정
- 일학습병행 훈련 운영비 간편 지원

- 단기 훈련 가능
- 이미 수강한 과목은 선이수 처리
- 프로젝트 기반 훈련으로 실무 역량 강화

- 내용 규제 완화, 기업 현장 직무를 훈련
- 지원금 명목 현장 훈련비로 통합



첨단기술로 농업의 미래를 열다 스마트팜의 오늘과 내일

박현출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장

인류 최초의 산업이자 문명의 출발점인 농업은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필수 산업이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도입된 후로, 농업 시스템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농업·스마트팜 전문가 박현출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장에게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효율성과 생산품의 품질을 극대화하는 스마트팜의 전망에 대해 들어본다.

글 김지연 사진 고인순

Q 4차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분야에 첨단기술이 활용되고 있는데, 농업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 농업에 활용되는 첨단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 첨단기술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해 저장, 유통, 마케팅 등 농업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로봇, 영상 장비 등을 활용해 농작물 생육 환경을 최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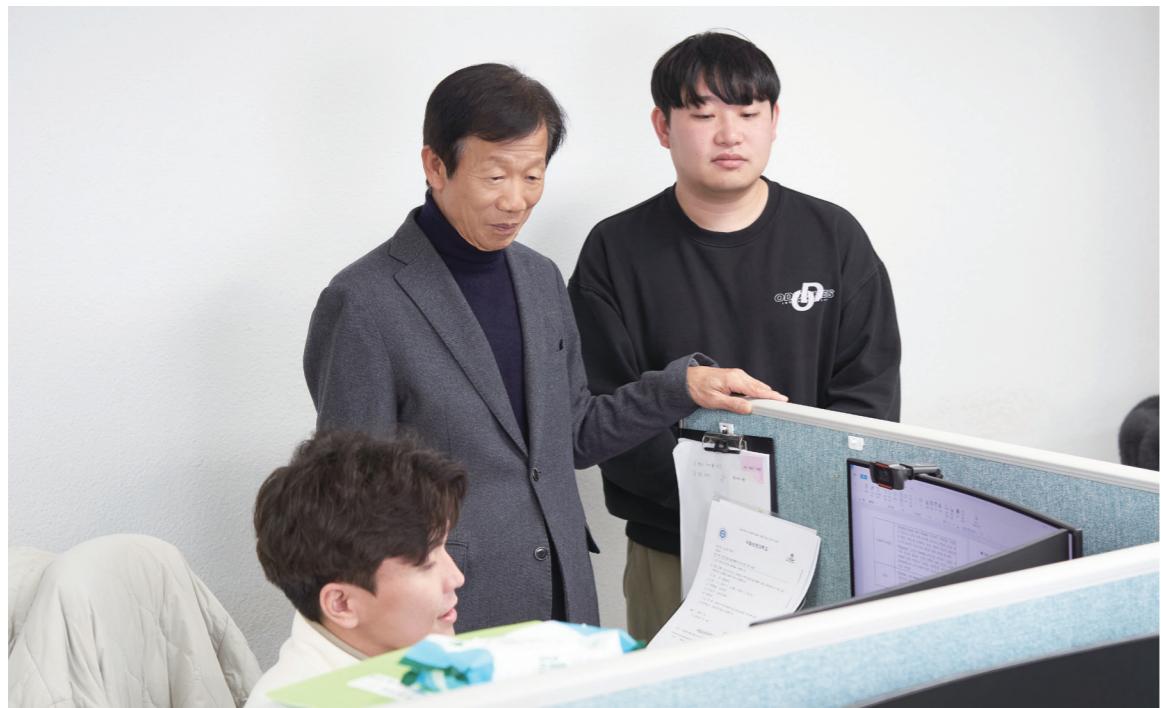
상태로 정밀하게 자동 제어하는 기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온습도 조절은 물론 병해충 판별, 수확까지 농작업 전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무인화 농사기법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Q 회장님께서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0여 년 공직 생활을 하며 평생 농업에 몸담아 왔지만, 우리나라 농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협회에서 스마트팜 기업과 학계,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전문 인력 양성, 연구 개발, 스마트팜 사후관리, 현장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각종 지원, 협력, 국가 간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일반적인 농업과 비교해 스마트팜의 장점은 무엇이며, 스마트팜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스마트팜은 농업에 첨단 ICT를 접목해 편리하고 정교하게 농사를 짓고, 생산비 저출도 최소화해 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모든 농작업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화하기 때문에 품질 향상과 노동력 절감이 가능하고, 기상환경과 상관 없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스마트팜은 농업에 ICT를 활용·접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농업 분야의 충분한 지식과 재배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마트팜 ICT 기자재와 데이터 분석 활용, 구조물이나 전기, 기계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기초지식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Q 현재 세계적으로 태동 단계인 스마트팜 산업에서 한국이 기술 선진국에 속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감소, 식량안보의 중요성 증대 등에 따라 세계 각국이 스마트농업 시스템 도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는 1970년대에 비닐하우스가 보급된 후 오랫동 안 시설농업을 해 온 경험이 있어 축적한 노하우가 많고, 우리 농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 산업에 활용하고 있죠. 전쟁, 산업화를 거치며 전통적인 농사부터 스마트팜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라 농업을 발전시켜 왔고 그에 따른 노하우도 충분하기 때문에 개발 도상국의 발전 수준에 맞춰 기술 전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스마트팜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성실과 근면, 창의력이 필수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속담에서 보듯 농업은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는, 정직한 산업입니다.

Q 스마트팜 관련 공부를 하면 일할 수 있는 분야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은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성공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유통·가공의 기계 및 설비, 종자산업, 도시농업, 해외사업, ICT 시스템 및 컨설팅, 마케팅 분야 등 일 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다양합니다. 스마트팜에 만 한정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온실 시공, 환경제어, 자동화 기계·설비, 컨설팅,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에서 활동할 수 있죠. 지금도 빅데이터 분석과 AI 활용, 농업용 로봇, 마케팅 등의 전문

어려운 분야인 만큼, 먼 미래를 보고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성공적인 스마트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Q 스마트팜 종사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농업은 힘들고 소득도 적은 분야라고 어겨져 왔지만 편리하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첨단기술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첨단기술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교육, 기술 지원, 임대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많은 기회가 열려 있고, 청년 인재들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의를 바탕으로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사라질 수 없는 필수 산업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꾸준히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도입되고 있는데, 스마트팜 분야의 전문가로서 본인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치밀하게 밀고 나가 미래 농업의 주인공으로 성장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직종들이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기관, 단체나 기업에 취업하거나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벤처 창업도 가능합니다.

Q 스마트팜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농업의 특성과 시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농작물 재배 기술과 노하우를 터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CT 활용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현재 ICT 학습환경이 크게 좋아져 있지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지식과 기술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실과 근면, 창의력이 필수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속담에서 보듯 농업은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는, 정직한 산업입니다. 수명주기가 길고 단기간 내 전문기술을 습득하거나 수익 창출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인턴형 참여후기: **청년의 첫 직무 경험,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저는 최근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실제 현장에서 직무 경험을 쌓고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려 합니다. 또한, 앞으로 참여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글 정유진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16기 참고 고용노동부



참여하게 된 배경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력서와 포트폴리오에 직무 경험을 추가하고자 했지만, 인턴 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인턴형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누리집(www.work.go.kr/experi)을 통해 프로그램이나 운영기관을 검색하거나 희망하는 지역, 직무 등을 선택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원한 프로그램은 제로인턴으로, 이 프로그램은 직무경험이 부족한 저에게도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과정

한 달간의 인턴십 동안 데이원컴퍼니 콜로소에서 근무 했으며, 하루 근무 시간은 5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 1주일간의 직무 교육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초 직무역량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❶ 사전 직무 교육은 1주일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초적인 직무 교육과 실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케팅 기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팀 단위로 수행하며 실습을 했고, 회사에서 이메일을 작성하는 방법과 같은 실용적인 교육도 받았습니다. 또한, 현직자 멘토링을 통해 실제 업무 준비와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비즈니스 매너, 보고서 작성법, 엑셀/피그마 등 직무 관련 툴 사용법 등이 포함되어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❷ 일경험 기간은 4주간 진행되었으며, 저는 마케팅 부서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GDN에 올라가는 콘텐츠 기획안을 작성하는 직무를 경험했습니다. 마케팅 부서

에서 근무하면서 콘텐츠 기획과 SNS 운영 업무를 직접 경험했으며, 이는 저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콘텐츠 마케터로 일하면서 SNS 콘텐츠 기획과 바이럴마케팅을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기획안 작성부터 콘텐츠 배포까지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성과 지표를 통해 마케팅 효율을 측정하고 최적화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고, 실무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와 툴을 배우면서 마케팅 기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수 분에게 피드백을 받고 개선하는 과정도 중요한 배움이었고, 회사 분위기와 업무환경을 직접 경험하면서 현장 감각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인턴형 프로그램은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 역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취업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직무 경험을 쌓고 실제 기업환경을 경험해 보고자 하는 청년분들은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과 함께하세요!

고용노동부 | zero-base

2025 제로인턴 사전예약

5주 간 빠르게 성장하는 실무 인턴십
고용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전포가페거리

전포공구길 여행

부산 전포카페거리의 매력은 깊숙이 들어갈수록 진가가 드러난다. 즐길 거리만 가득한가 싶다가도 몇 걸음 더 걷다 보면 쉬어가기 좋은 휴식 공간이 나온다. 그러다가 다시 다른 길을 따라가면 옛 공구상가와 어우러진 개성 넘치는 상점들이 줄비한 전포공구길에 다다른다. 거리마다 테마가 가득해 지루할 틈이 없는 부산의 골목길 나들이에 나서보자.

글 김민영 사진 정우철



기계 부품이 가득했던

전포동의 변신

부산 전포동은 부전동과 함께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에 속하는 곳이다. 지금은 각종 상업시설, 교육시설, 금융시설 등이 밀집한 그야말로 번화한 도심이지만 예전에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오래전, 전포동에는 꽤 오랫동안 대형 버스 공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인지 동네에는 공구와 기계 부품 가게가 많았다. 하지만 2010년 버스 공장이 울산으로 이전하자, 여러 공구·기계 부품 가게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옮겼다. 그때를 기점으로 이 거리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왠지 모르게 빈티지한 멋이 감도는 거리에 몇몇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공구를 팔던 가게 자리에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요즘 스타일의 카페를 열었다. 그 후 작은 규모의 카페와 소품 가게, 음식점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다시 전포동 뒷골목으로 향했다. 180도 바뀐 거리의 모습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커피향 가득한 전포카페거리



이국적인 분위기의 작고 예쁜 카페들 덕분에 거리는 커피향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거리를 '전포카페 거리'로 부르기 시작했다. 시민들과 여행자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따뜻한 거리의 모습에 세계도 주목했다. 2017년, 미국 뉴욕타임스가 전포카페 거리를 '꼭 가봐야 할 세계 명소'로 소개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들 역시 명망 높은 뉴욕타임스에서 주목한 이유를 두고 '도시재생 성공 사례이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때부터 전포카페거리는 테마 가득한 거리로 거듭나게 된다.

지자체는 이 일대를 재정비하고 국내 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부산문화재단과 협업해 청년 예술가가 참여하는

벽화갤러리를 조성했고, 각종 안내판과 보도블록도 특색있게 정비했다. 전포성당과 놀이마루 사이에 상징처럼 자리한 커피 열매 벽화와 커피잔 조형물도 그 노력 중 하나다. 이곳은 지금도 전포카페거리의 대표 포토존으로 사랑받고 있다.

전포커피축제도 마찬가지다. 부산시는 2017년 전포카페거리가 뉴욕타임스의 올해에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전포카페거리에서 축제를 열기 시작했다. 2024년 기준 8회째 진행되고 있는 전포커피축제에서는 전포 및 유명 지역 커피, 디저트 판매 부스와 일본, 대만 등 해외 바리스타 초청 부스가 운영되는데, 다양하고 독특한 커피를 맛볼 수 있어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몰리는 중이다.

빈티지한 멋이 있는 전포공구길



전포초등학교 방면으로 전포카페거리 길목마다 그려진 귀여운 커피 열매를 따라가다 보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공구 가게들이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포공구길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카페가 들어선 전포카페거리 와는 달리 공구 가게들 사이사이로 특색을 지닌 카페와 상점들이 들어선 모습이 인상적이다. 마치 서울의 성수동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인기 정점을 찍은 전포카페거리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상권이 번지면서 이곳 역시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낮에는 조금 조용한 편이지만, 해가 지면 가게의 조명들이 켜지면서 더욱 운치 있다. 오히려 전포카

페거리보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을 정도라고 한다. SNS 인증사진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웨딩사진을 찍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커피 내리는 소리와 '깡깡' 하며 기계를 고치는 소리가 공존하는 묘한 매력이 있는 곳이다. 전포카페거리와 전포공구길의 인기로 전포동 인근 골목들이 자연스럽게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한다. 부산에서 색다른 여행을 하고 싶다면, 전포동 골목길에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 서면 짧음의 거리부터 전포카페거리, 전포공구길 맞은편 전포사잇길로 이어지는 전포동의 골목길이 저마다의 매력을 드러내며 여행자들에게 다양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가상 세계에서 수많은 일이 이뤄지는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오감으로 느끼는 경험을 중시한다.
현생 인류가 20만 년 넘게 이어온 아날로그적 일상을 수십 년 역사에 불과한 디지털 세계로 완전히 대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온 세상이 디지털에 '물성매력'을 부여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이유다.

글 강진우

디지털 시대에도 변치 않는 물성의 가치

물성매력



오감을 자극하는 아날로그적 경험



무언가에 푹 빠지면, 사람들은 이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추구한다. 예컨대 어떤 애니메이션에 열광했다면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의 정밀 모형(피겨)이나 굿즈를 갖고 싶어 하고, 관련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리면 눈에 불을 켜고 티켓팅에 나선다. 피겨와 굿즈를 갖고 놀거나 장식하고 전시회 속 다양한 오감 체험형 콘텐츠를 섭렵하면, 화면 속 애니메이션이 머릿속에서 한층 입체적으로 살아 숨 쉬며, 결국 그 애니메이션을 더더욱 좋아하게 된다.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앨범만 듣다가 콘서트에 한 번 다녀으면 '덕질'의 심도가 깊어지는 것도, 시사회에서 영화를 보고 배우와 소통하면 해당 영화와 배우에 대한 애착이 더해지는 것도 같은 원리다.

디지털은 우리에게 시각과 청각에 의존한 감각만을 선사한다. 이 둘에 더해 후각, 미각, 촉각까지 복합적으로 활용하며 살아온 인류에게는 턱 없이 부족한 자극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디지털 세계 바깥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욱 다채롭게 경험하고 싶어 하며, 이러한 욕구는 디지털화의 속도와 비례해 커지고 있다.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로 유명한 서울대 김난도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물성매력'이라는 신조어로 정의한다. 말 그대로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세상 속 물성의 매력이 디지털 시대에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의미다.

다방면으로 펼쳐지는 물성화 노력

손에 잡히는 물성을 통해 손에 잡하지 않는 무언가의 매력을 끌어올리려는 노력, 즉 '물성화'는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소개한 콘텐츠의 물성화가 가장 대표적인데, 최근에는 브랜드도 물성매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브랜드의 가치와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브랜드 및 제품과 관련된 이색적인 체험 공간을 속속 마련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브랜드를 넘어선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훌륭하게 수행 중이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직접 써 보고 느끼지 못하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각자가 보유한 핵심 기술과 유용성을 오프라인 공간에서 실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내부 고객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문화의 물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무 공간을 기업의 철학과 가치관에 맞춰 기획 및 구성하는 것은 물론, 임직원 전용 굿즈 등을 통해 애사심과 유대감을 높여 나가고 있다.

디지털 기술 발전 속도는 빨라지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오감을 활용해 살아간다. 따라서 물성매력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꾸준히 힘을 발휘할 전망이다.

물성매력 사례



책 출판

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 기업은 다양한 금융 콘텐츠를 담은 책을 출간했으며, 이를 통해 자사의 금융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물성화했다.



기술 경험 주택

국내의 글로벌 가전 기업은 에너지 및 가전 관련 기술을 한데 모은 모듈리 주택을 제작해 기술의 혁신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용돈 배달 서비스

우정사업본부는 자녀가 부모님께 매월 드리는 용돈을 현금으로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행해 효심을 실감할 수 있도록 했다.

01

「사업주자격 정부 인정 선포식」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1월 25일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사업주자격 정부 인정 선포 및 협약식」 행사를 개최했다. 사업주자격은 사업주가 기업의 직무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산업계는 △안전작업 △매출증

가 △품질향상 △조직몰입에 효과적인 자격으로 평가하며, 근로자도 자격을 취득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조선사의 선박도장자격을 제1호 사업주자격으로 인정하기 위한 협약식도 함께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제1호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을 시작으로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가 앞장서 발굴한 기업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인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02

고용노동부·교육부, 청년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지난 11월 27일,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청년들의 직업능력 향상과 취업지원에 대한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들이 내실 있는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번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직

업계고 교육의 산업 현장성을 높이고, 졸업생들의 취업 지원 강화 △고등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간 연계 확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지역 일자리에 취업하는 생태계 구축이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이번 협업을 통해 직업교육·훈련과 고용서비스를 연계해 청년들은 원하는 일자리로 취업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맞춤형 취업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03

고용보험 가입·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 실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지난 11월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했다. 그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

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각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소상공인은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모두 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없다.

04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 발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를 발간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6개 국가였던 송출국은 현재 17개국이 됐고, 안정된 제도 운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근로자(E-9)가 꾸준히 증가해 2024년 상반기 누적 입국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서며 발전을 거듭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에는 제도 도입 배경, 도입 초기 모습과 발전 과정, 미래에 대한 조명까지 상세히 담겨 있고 제도 발전사와 함께 현장의 이야기도 비중 있게 다뤘다. 백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05

**상습체불 기업·
건설 현장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월 2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먼저,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

을 실시하고, 감독 결과 고의적 체불이 확인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했다.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과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는 건설 현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인 기획감독과 지도·점검으로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06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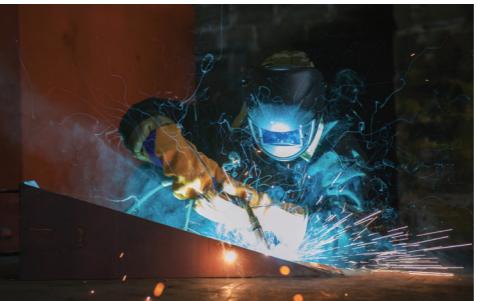


고용노동부가 추위에 노출돼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오는 3월까지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①건설·청소·위생 등 야외작업이 많아 한파에 취약한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②고령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③한랭질환 예방 및 민감군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취약사업장(3만개 소) 스스로 한랭질환 발생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자율점검 기간을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운영했다. 이후 지방관서에서 2월 말까지 쉼터 등 한랭질환 예방 3대 수칙(따뜻한 옷·물·쉼터) 이행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4천개 소)한다.

07

**중장년 폴리텍
직업훈련 대폭 확대**



에서 전기, 용접, 설비 등 다양한 분야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률은 60%에 이른다. 올해부터는 중장년층의 취업 성과가 높은 전기, 산업설비 등 전통산업 분야에도 디지털 전환을 반영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는 기반 시설을 순차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폴리텍 대학은 올해 상반기 신중년 특화과정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다. 훈련 비용은 무료이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요건을 가진 40세 이상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캠퍼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08

**유연근무 정책 제안
게시판 신설**



고용노동부가 온라인 유연근무 정책 제안 게시판을 마련했다. 시차출퇴근,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근로시간 단축제,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확산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 국민 누구나 활용사례, 견의·불편사항 등을 바탕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책 검토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관련해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에 생산성을, 근로자에겐 일·생활 균형을, 사회적으로는 저출생 해소를 위한 유연근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적인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유연근무 정책 제안 게시판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기본 덕목으로 여겨지던 절약이 불현듯 불어닥친 율로(YOLO) 열풍으로 사그라지는가 싶더니, 최근 요노(YONO)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 커지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이제 절약은 당연한 일이자 자랑거리다.

글 강진우

다시 찾아온 절약의 시대 요노 소비

‘율로’에서 ‘요노’로 갈아탄 MZ세대

요즘 SNS를 살펴보면 액정 깨진 스마트폰, 10년 넘은 노트북, 오래된 가구 등이 담긴 게시물이 종종 눈에 들어온다. 흥미로운 점은 사진 밑에 달린 글 속에 일종의 자부심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스마트폰 카메라 부위 액정에 금이 가서 뿌옇게 나온 사진을 지우지 않고 당당하게 공유하며 ‘액정 깨진



폰 덕분에 자체 빛 보정!이라는 ‘요노 소비’ 게시글을 남기는 것이다.

요노(YONO)는 ‘You Only Need One’의 줄임말로, 꼭 필요한 것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다.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과소비적·과시적 트렌드인 율로(YOLO)와 정반대에 서 있는 개념으로, 최근 MZ세대의 큰 호응을 받으며 핵심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급변한 소비 경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지난 몇 년간 꾸준히 감소해 온 체크카드 발급 건수는 지난해 반등에 성공했다. 작년 9월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체크카드 발급 건수는 재작년 동기 대비 약 928,000장 늘었다. 같은 기간 이용액 역시 4,605억 원가량 증가한 27조 5,537억 원을 기록했다.

체크카드 발급 건수의 증가, 그 배경에는 ‘절약’이 존재한다. 한 신용카드 플랫폼 기업이 지난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347명을 대상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8%가 ‘과소비가 우려돼서’를 꼽았다. MZ세대가 어떻게든 소비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절약에 즐거움을 덧붙이다

중고 소비도 점점 늘고 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의 2024년 1분기 패션 카테고리 거래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두 배 늘어난 640억 원을 기록했는데, 구매자 중 78%가 MZ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NH농협 은행이 개인 고객 3,200만 명의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상반기 20~30대의

수입차 구매 대수는 재작년 같은 기간 대비 11% 감소했지만, 국산차와 중고차 구매 대수는 각각 34%, 29% 증가했다.

율로 소비의 상징과도 같았던 맙김차림(오마카세)의 상승세도 한풀 꺾였다. 20~30대의 작년 상반기 뷔페 소비 건수는 2023년 상반기에 비해 4%, 양식 업종 외식은 8% 줄었다. 반면 농협 하나로마트의 간편식 소비 건수는 21% 상승, MZ세대가 식생활 측면에서의 소비도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율로를 지향했던 MZ세대가 급하게 요노로 소비 경로를 변경한 가장 큰 이유는 지속적인 경기 불황과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려 노력한다. 자발적으로 ‘하루 저출 0원 챌린지’에 나서고, 주변 사람들과 지출을 줄이는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절약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실천하는 것. 요노 소비가 MZ 세대에게 있어 궁상이 아닌 자랑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다.





배려심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나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꼼꼼한 분석력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하며 다른 사람을 돋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라면 시각디자이너와 사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나의 성향과 맞는지 파악해 보자.

정리 편집실 참고 책 「MBTI 진로탐색」의 다수



ISFJ의 특징

#진솔함 #책임감 #꼼꼼한 계획

“책임감이 강하고 배려심이 많습니다.

타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때

만족하며, 체계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ISFJ는 책임감이 강하고 현실적이며, 배려심이 깊어 타인에게 성심껏 도움을 준다. 겸손한 성격으로 보상을 요구하기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도움을 주고 그 자체에 만족하는 유형이다.

다. 진솔하고 대인 관계 능력이 좋아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며,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어 맑은 일을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배려심과 책임감 있는 성격을 이용하려는 주위 일부 사람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

I 나의 에너지 방향은?

외향형 E

- 글보다는 말로 표현하기 원해요.
- 사교적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요.
-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기 원해요.
- 깊이 생각하고 혼자만의 생각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요.

S 나의 인식 기능은?

감각형 S

- 실제의 경험, 현재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요.
-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직접 관찰한 정보를 신뢰해요.
- 영감, 아이디어, 의미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요.
-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직감을 신뢰해요.

F 나의 사고 성향은?

사고형 T

-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의사 결정하기 원해요.
- 일관성, 공정성, 진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 가치관, 공감, 타인의 감정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요.
- 조화, 공감,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J 나의 의사 결정은?

판단형 J

- 계획해서 결정을 내리고, 일정을 따르는 것을 좋아해요.
- 명확성, 예측 가능성, 안정성을 중시해요.
- 새로운 정보에 적응하고 선택권을 열어두는 것을 선호해요.
- 유연성, 자발성, 개방성을 중시해요.

나에게 맞는 직업일까?



시각디자이너의 성향

창의력

상상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호기심

항상 새롭고 트렌디한 것에 관심 있다.

하는 일

• 상품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광고, 포장지, 상세 페이지, 홈페이지 등을 제작한다.

취업 분야

• 디자인 전문회사, 광고대행사, 신문·잡지사, 출판사
• 제품디자이너, 복디자이너, 폰트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책 GPT가 살펴본 직업 전망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 등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수요가 높아지고, 기업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프리랜서와 원격 근무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최신 디자인 트렌드와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면 성공적인 커리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서의 성향

정직

중요한 개인·공공정보를 꼼꼼히 관리한다.

분석력

십진 분류표에 따라 자료를 분류·정리한다.

하는 일

• 도서, 자료를 배치하고 이용자가 자료를 열람, 대출하도록 돕는다.
• 필요한 도서와 이용자의 희망 도서를 선정 및 추천한다.

취업 분야

• 도서관, 학교, 대학, 박물관, 기록보존소
• 기록물관리사, 출판물기획자, 인문과학연구원

사서가 되려면?

전문대 문현정보 관련 학과 졸업 시 준사서 자격, 4년제 대학 문현정보 관련 학과 졸업 시 2급 정사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사서 자격증 취득 후 사서직 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하면 국공립도서관 등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교직이수 후 사서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교원 임용고시에 합격하면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할 수 있다.

글·그림 여혜리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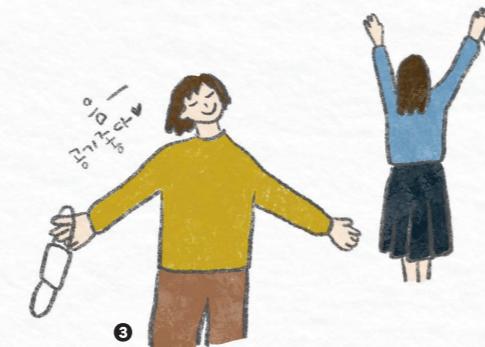
희망은 곳곳에 있어요 ✨+



첫 출근의 설렘도 희망.



험한 길을 올라 산 정상에 도착한다는 목표도 희망.



팬데믹의 끝에서 느꼈던

이제 살 것 같다는 안도감도 희망.

희망은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삶의 곳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의 목표는

작은 희망을 꾹꾹히 찾기. 어디신가요?

기분 좋은 하루



기분 좋은 하루

짧은 순간이었지만
좋은 기분은 은은하게 하루와 함께 하지요.

누군가의 선의에 참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때때로 고단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그렇게 따뜻해진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좋은 기분을 멀 사람에게 전달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간내일』과 함께하는 초성퀴즈

『월간내일』 2025년 1월호를 읽고 퀴즈에 응모해 보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QUIZ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되어, 올해부터 이것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Tip) <고용 아카이브> 코너

Hint!

○○한국

훈련생이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한국형 도제제도로, 2025년 'KAP 사업' 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교에서도 편리하게 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Tip) <일터애(愛)서> 코너

Hint!

○한국인

참여방법 | 이벤트는 QR코드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Step 2 이벤트 응모 입력 후 제출

* 참여기간

2025년 1월 16일(목)까지

* 당첨자에게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12월호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강*빈(6788) 김*순(6560) 김*림(1591) 박*금(7618)
서*훈(8374) 안*탁(6636) 이*미(2138) 이*현(1405)
임*희(6310) 한*진(0721)

『월간내일』 독자 라운지

이번 「월간내일」 잘 읽어 보셨나요? 이번호를 읽으며 가장 좋았던 내용은 무엇이며, 가장 도움이 되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더욱 알찬 「월간내일」로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 ① 이번 「월간내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 ② 이번 「월간내일」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③ 앞으로 「월간내일」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참여방법 | 이벤트는 QR코드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Step 2

이벤트 응모 입력 후 제출

참여기간 2025년 1월 16일(목)까지

※ 당첨자에게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월간내일』 구독 및 구독 해지 방법

- ① 「월간내일」 웹진에 접속합니다.
- ② [QUICK MENU]를 클릭하고, '구독신청 및 해지'를 클릭합니다.
또는 홈페이지 제일 아래의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③ 구독하시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구독을 해지하시려면 '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구독 및 해지를 위해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